

<2024년 7월 14일 주일말씀>

주 하나님 뜻대로

본 문 :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대로 이뤄집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 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성리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서 살라고 자기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생 아무것도 안 해 주셔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어떤 자가 있는데 집도 없고, 땅도 없어서 그냥 놓아두면
몇 달 못 가서 죽을 것 같아
집도 지어 주고, 농사지어 먹으라고 땅도 사 주고,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며 살라고 해 주었다.
그럼, 그 이후에는 평생을 안 도와줘도
일생 동안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 하나님도 그러하지 않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라는 집을 창조하여 주고,
자신을 세상에 나게 창조하여 살게 해 주었으니,
이후에는 평생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깨닫고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만일 자기도 어떤 가난하고, 다 죽어 가는 자에게
집도 지어 주고, 병든 것도 고쳐 주고, 1년 동안 먹을 것을 주며
“나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잘 살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소식이 없어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잘 살게 해 줬다고 절하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사람을 보내어 해 준 것을 모두 빼고
예전처럼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제야 그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는 축복을 주지 않고, 종같이 섬기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면 또 허랑방탕하고,

자기를 섬기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주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죽는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 사람은 다 죽어 가는 자를 살려 놓으면 그때만, 잠깐은 잘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정도 잘하고, 해 준 것만 좋아 쓰고

오히려 그것을 신으로 삼고 거기에 빠져 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와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고, 가장 잘 변하고 잘 썩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절대 알고 대하십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이것을 해 주면 평생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겠다.” 고 하지만,

막상 해 주고 나면 언제 사라졌는지 안 보입니다.

어떤 자는 해 주니 계획적으로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갈 길로 평생 간 것입니다.

선생이 각종 아픈 자들과 장애가 있는 자들을 고쳐 주었더니

금방 사라져 버리고,
 또 이제 건강하니 제 좋아하는 자를 찾아가 사랑하며
 섭리사를 악평하고, 각종으로 고통을 주고, 관청에 고소하고,
 수많은 자에게 고통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들의 이런 억울한 기도를 듣고 노하시고,
 그 행위를 보셨으므로 그동안 행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같이 양심 심판을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을 맡겼어도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 한 자들이고, 의롭게 하지 못해서입니다.

영혼을 사냥한 자들은 그 육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
 사망의 고통을 받습니다.

- ◇ 자기를 구원하는 자를 불신하고 변절한 배신자는
 하나님이 사하심을 거두므로 사망에서 구할 자가 없습니다.

〔 히브리서 6장 4~6절 〕 을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에 대한 것을 알고도
 죄를 범한 자는 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다시는 사하심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건 대가’로 더욱 축복해 주시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며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만 얻고 살게 두시고,
 수시로 고통을 주어 하나님의 품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 ◇ 과거에 잘 믿고 열심히 하던 자들 중에 이탈한 자를 보니,
 일을 맡기고 대가를 주고, 은혜를 주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결국 다 드러났습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니 열심히 하다가도
 행하는 목적이 자기 길로 행함이니 하나님이 일을 거두셨습니다.

- ◇ 영계에 가서 계시받았던 자들도
 자기 조건과 대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니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거두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적으로는 열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보낸 자가 필요하므로 그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섭리사에 모든 자들을 위해
 영계를 허락하고 열어 준 것인데,
 자기가 영력이 높아 가는 줄 아니 모두 거둔 것입니다.
 모두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허락하고
 은혜를 주어서 계시도 받게 된 것입니다.

- ◇ 다른 사명을 받은 자들도 사명을 주니, 하게 된 것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명을 주며 맡긴 자와 같이 하자고
목회자도, 그 외의 각종 사명자들도 사명지로 보냈더니 혼자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니
따르는 자들과 교회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고로, 거기에 합당한 자, 충성할 자에게 맡깁니다.

- ◇ <월명동>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선생에게 그 구상을 맡기니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신 격이 되어 항상 보아도 은혜롭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것이
지구 세상에서 그 얼마나 크고 큰 것인지 알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보고 그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른 사명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월명동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상대로 안 되니
계속 무너트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 자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트리고,
계속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시대 머리와 같이 해야 됩니다.

절대신 하나님, 성령과 그 보낸 자가 맡긴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생활의 일이 아닙니다.

월명동이 개인 정원이 아니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월명동도 구상을 주시니,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물어보며 했습니다.

선생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고로, 모두 만족해하며 쓰고 있습니다.

◇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다 맡기면

자기 중심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거두십니다.

절대 사람에게는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에게만 절대 맡깁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착오도 합니다.

모르고 행하니 실수하여 큰 손해가 갑니다.

전체를 보고 해야 됩니다.

고로, 항상 머리와 의논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까지, 천국까지 닿았습니다.

자기는 땅에서 공중으로 1m도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이러함을 깨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한 자 한 자 말씀하시는 대로 써야

하나님이 써 놓은 내용의 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대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100자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자씩 물어보면서 그대로 써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만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생각하여 쓰면

하나님의 뜻이 속 시원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일을 도우려면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그를 ‘적’으로 보게 됩니다.

시켰어도 다르게 하면, ‘반대자’로 봅니다.

◇ 보낸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자기 개인에게 계획한 뜻도 이뤄집니다.

그래야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일부만 맡긴 자의 의견대로 하고

모두 하나님의 일을 제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자에게 일을 안 맡기시고

그를 믿지 않고 다른 자를 통해 행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통해 모두 행하십니다.

섭리사에서 자기 사명을 보면

그 위치에서 그것 한 가지만 필요한데,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고 부딪히는 자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쓰는 자가 잘 써야 됩니다.

한 가지에 쓰일 때는 걸리적거리지 않는데

다른 데에도 쓰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손목시계>도 시간을 보는 것,

그것 한 가지가 필요해서 차고 다닙니다.

그러나 막상 일할 때는

시계 때문에 각종으로 불편하고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니 아쉽지만 안 차고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일을 맡기면 문제를 일으키니 아쉽지만 안 쓰고 합니다.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쓰고 할 때가 좋습니다.

◇ <옷>도 잘 차려입은 옷이라도 일할 때 불편하면

그 옷을 벗어 내던지고 일복을 입고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섭리사의 일을 하면서 걸리는 자가 많습니다.

잘하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돕는 것이 오히려 선생에게 해가 더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선생에게 말씀하시길,

“고로 네가 해야 한다.

육에 속한 자는 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과 ‘성령’ 과 ‘맡긴 자’ ,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 인간은 목숨을 걸어 놓은 일에도 ‘착오’ 가 많습니다.

‘착각’ 도 많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 맡기면 안 됩니다.

고로 혼자 하려 합니다.

혼자 하면 오히려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더 쉽기도 하니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핵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 한 명만 통합니다.

◎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이 새벽기도를 하고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모기가 물려고 하다 도망가서 쫓아가니 벽에 붙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악을 잡듯이

오른손을 벽 가까이하여 손바닥으로 딱! 때렸습니다.

모기가 물건 뒤로 떨어져서 죽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성령께

“모기가 사탄이 방해하듯 하여 속 시원히 죽었습니다.” 하니

성령님은 “안 죽었다.” 하셨습니다.

선생은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바닥을 벽 10cm 가까이에서 대고 때려서
뒤쪽에 떨어져 죽은 것을 확인만 못 했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님은 “안 죽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그럼 안 죽었다는 근거, 증거 능력을 위해
그 모기를 또 제게 보여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그것 신경 쓰지 말고 글이나 급히 써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모기를 잊고 말씀을 3장 쓰고 있으니
손에 모기가 다시 와 앉았습니다.

순간 두 손으로 확 잡았습니다.

확인하니 아까 그 모기가 맞았습니다.

성령님이 “증거 능력이다.” 하셨습니다.

모기를 쉽게 잡은 것은

모기가 죽은 것을 선생이 봐야 더욱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급하게 일을 시켰는데 그 말은 자들이
자기는 확실히 했다고 했지만 안 되었다.

일 시킨 나 성령과 선생과 같이 안 해서 안 되었다.

교단에서 일을 하여도

같이 의논하지 않고 하면 제대로 안 된다.

축구를 하여도 미리 의논하고 패스해야 확실하게 한다.

같은 팀은 반드시 의논을 하고 행해야 된다.

교단은 했다고 하나 안 됐다.
 서로 의논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된다.
 나 성령과 선생과 하라 함이다.” 하셨습니다.

자기는 확실히 했다고 했는데 성령과 선생과 하지 않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했다 하지만 아예 제대로 못 했습니다.
 선생과 같이 안 해서입니다.
 섭리 교단 국장들도 늘 서로 의논하고 하면 쉽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된다(잠 15:22).” 하였습니다.

절대신 하나님과 해야 되고, 맡긴 선생과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생깁니다. 큰일 납니다.
 왜 일을 하는데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시킨 일을 ‘함께, 같이!’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 ◇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자기 착각이 너무 많다.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와는 핵적인 것은 보낸 자 한 명과만 통한다.
 나와 함께 안 한 것은 뜻이 아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 버린다.
 자기는 공적(功績)으로 생각하나 오히려 책망받는다
 시킨 자와 같이 안 하면 불법자다.
 자기 중심해서다.
 함께하여 한 것은 자기 공적이 되고,
 나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된다.

〈제1 창조〉는 나 여호와 절대신만 한다.

그다음 〈제2 창조〉는 나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한다.

바로, 그 보낸 자와 같이 한다.”

하셨습니다.

◇ 성경에도 이와 같은 교훈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 군사를 모아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기로 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고,

해변의 모래같이 모인 블레셋 군대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자신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드러야 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마치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사울의 죄를 알렸습니다.

『 사무엘상 13장 13~14절 』 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할 일을 하니 그를 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제1 창조>는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 하십니다.

섭리 안에서도 선생만 할 일은 같이 돕는다고 하면 해가 됩니다.

◇ 성령과 함께 쓰지 않은 말씀은 감동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나 성령으로 행하여라.

전에는 성령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나와 항상 통하겠느냐.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와서 겨우 사는 자들이

<육성>이 살아 행함을 <영성>이 살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속지 말아라.

<영성>이 아닌, <육성>이다.

행하여도 문제가 많다.

자기 구원이나 이루어라.

나 성령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행한다.

나 성령이 일체 되어 행하는데,

어느 때는 같이 하고, 어느 때는 같이 안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 <성령이 같이 행하는 자>는

어느 때는 같이 하고, 어느 때는 같이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육성으로 하는 자들이 자기가 그리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생각도 육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안 하는 자는 ‘육적인 자’가 되어 일하게 됩니다.

‘육적인 자’들을 <가인>이라 합니다.

〔 창세기 4장 3~5절 〕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 섭리인들 중에 이때 선생을 돕는다고 일을 해 주지만,
손해가 많이 갑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시켜도 선생과 의논하지 않고 하므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선생과 할 일입니다.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 알겠습니까.

오히려 악이 됩니다.

모두 명심하고,

하나님, 성령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오늘 말씀 주제대로 꼭!

‘주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신 하나님, 성령, 성자의 사랑하심과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